

리처드 마우(Richard J. Mouw)의 공공신학에 관한 연구

김승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리처드 마우의 신학적 배경

1. 아브라함 카이퍼와 신칼뱅주의
2. 복음주의 전통

III. 리처드 마우의 공공신학

1. 거룩한 세계(성) (holy worldliness)
2. 다양성과 공통성 (commonness)
3. 정치적인 교회와 복음의 실천

IV. 공적인 삶의 실천

1. 신념 있는 시민 교양 (convicted civility)
2. 거룩한 시민
3. 다수성의 인정과 대화의 실천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58.01>

• ABSTRACT •

A Study on the Public Theology of Richard J. Mouw

Lecturer, Kim, Seung Hwa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Richard Mouw, a prominent Christian theologian rooted in Reformed theology, has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on philosophy, ethics, and various public issues through his extensive body of work. His theological exploration encompasses political, economic, racial, globalization, interreligious dialogue, and educational aspects of public issues. Mouw's theology characterizes a dialogical character that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the Reformed tradition, embracing both evangelical and ecumenical perspectives.

He emphasizes the church's responsibility to engage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public life. This study aims to examine Mouw's public theology and propose connections to bridge the gap between evangelical and ecumenical spheres in the divided Korean church. Through a reflective analysis of Mouw's ideas, this study seeks to provide insights applicable to the contemporary Korean church context.

Key words: Richard J. Mouw, Public Theology, Public Faith, Holy Worldiness, Convicted Civility, Neo-Calvinism

I. 들어가는 말

리처드 마우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철학, 윤리 그리고 공공의 다양한 이슈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기독교 사상가이다. 20여 권의 책과 수백 개의 아티클을 통해 정치, 경제, 인종, 세계화, 종교 간 대화, 교육 등의 공적 이슈를 신학적으로 다뤘을 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다. 리처드 마우의 신학은 개혁주의 전통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 모두를 아우르는 폭넓은 대화적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다. 마우는 신학과 공적 삶(public life) 사이의 연결성을 고민하면서 신학의 토대 위에서 세속 사회를 이해하고 응답해왔다. 세속과 신앙 사이의 가교를 위해 그는 ‘거룩한 세계(성)’(holy worldliness), ‘정치적 전도’(political evangelism), ‘신념 있는 시민 교양(convicted civility), ‘원칙적 다원주의’(principled pluralism), ‘세례의 정치학’(baptismal politics)처럼 서로 다른 두 영역을 연결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¹⁾

국내에서도 리처드 마우의 글이 상당수 번역되면서 대중적인 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듯 하다.²⁾ 한국교회 복음주의 진영의 신칼뱅주의(Neo-Calvinism)의 상당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적으로 모호한 태도와 중간에 머무르려는 입

1) Matthew Kaemingk eds., *Reformed Public Theology: A Global Vision for Life in the Worl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1), vii-ix.

2) 리처드 마우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배덕만의 “한국 진보적 복음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교회사회학회지」 41(2015), 205-242에서 진보적 복음주의자로 평가받은 것과 이창호의 “문화사역의 신학적 토대에 대한 성찰-몰트만과 마우를 중심으로,” 「기독교 사회윤리」 46(2020), 209-246과 “린지의 동물신학 탐구와 비평적 대화 모색 - 몰트만, 마우, 스택하우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5(2023), 37-75에서 다른 학자와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다. 국내 신학계에서 리처드 마우의 신학 사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평가한 사례는 많지 않다.

장은 두 진영(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에서 공격을 받거나 외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리처드 마우는 칼뱅의 사상을 잇는 신칼뱅주의와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진영을 아우르고 있기에 기독교의 다양한 진영을 연결하고 아우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다. 또한 한국 목회자들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20년간 총장을 지내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렇기에 리처드 마우의 신학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좌우의 진영논리에 갇힌 한국교회와 신학을 연결 시킬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혁신학과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교회의 공적 참여를 제안하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확장시키는 작업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 리처드 마우의 신학적 배경

1. 아브라함 카이퍼와 신칼뱅주의

리처드 마우는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가를 뽑으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라고 대답했다.³⁾ 그는 1960년대 후반에 아브라함 카이퍼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인 삶의 쟁점들에 관해서 오랫동안 갈구했던 학문적인 물음에 대한 정답을 얻었다고 고백한다. 60년대 당시, 미국 기독교의 시민 권리 운동과 베트남 전쟁의 적법성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할 때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에 응답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못했었다. 당시 복음주의의 입장에서 공적 이슈에 응답할 때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면서도 자유주의 입장이나 가톨릭의 공적 제자도 방식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는 아브라함

3) Richard J. Mouw, *Uncommon Decency*, 홍병룡 역, 『무례한 기독교』 (서울: IVP, 2014), 194.

카이퍼를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된다.⁴⁾

신칼뱅주의(Neo-Calvinism)가 미국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898년 프린스턴의 스톤 강연(Stone Lectures)에서 카이퍼가 했던 발표 자리였다. 카이퍼는 신칼뱅주의는 칼뱅 신학의 형식을 복구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대신 우리 시대의 필요에 응답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는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마우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다.⁵⁾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구인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라는 문장은 신칼뱅주의의 관점을 총체적으로 잘 요약한다. 기존의 칼뱅주의는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으며, 그분의 전적인 선택에 따른다고 여기지만 카이퍼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매일의 삶에서 적극적인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신 통치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여겼다.⁶⁾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은 신자들은 복음의 증인이자 시대의 피수꾼으로서 공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공적인 현실에서 기독교와 비기독교 사이의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공적인 선을 도모하는 일에 참여하게 한다.

기독교 전통은 시대와 상관없이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하지만 저마다의 공적인 요청에 끊임없이 응답하고 적용하면서 새로운 형식을 갖출 필요

4) Richard J. Mouw, *Abraham Kuyper: A Short and Personal Introduction*, 강성호 역, 『아브라함 카이퍼』 (서울: SFC, 2015), 10-12.

5)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31), 41. Richard J. Mouw, “Neo-Calvinism: A Theology for the Global Church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lvin Theological Journal*, 51(2016), 7에서 재인용. 카이퍼는 강의 내내 칼뱅주의를 복합체, 삶의 체계, 일반적 경향성, 포괄적인 삶의 체계 등으로 부르며 궁극적으로는 세계관이자 인생관이라고 말한다.

6) Richard J. Mouw, *Abraham Kuyper*, 21-22.

가 있다. 카이퍼는 정치적인 삶의 원리들이 창조 질서 안에 형성되어 있기에 비기독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반영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⁷⁾ 이러한 배경에는 천지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신비가 세속 사회와 부합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뿐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사회 안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이다.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주장하는 카이퍼의 사상은 칼뱅의 ‘절대주권’ 개념을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으로 확장 시킨 결과물이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각 문화의 영역에 따른 고유한 자리가 있으며, 각각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⁹⁾ 그렇다고 각각의 영역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공적 삶이 반드시 정당 전쟁(just war)의 입장처럼 승리주의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되었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칼뱅주의가 비판받은 승리주의적 태도를 벗어나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승리 안에서 여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¹⁰⁾

오히려 마우는 칼뱅주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이분법적 태도를 기반으로 하는 칼뱅주의자들을 비판한다. 그들에게는 온유와 겸

7) Vincent E. Bacote, *The Spirit in Public Theology: Appropriating the Legacy of Abraham Kuyper*, 이의현 역, 『아브라함 카이퍼의 공공신학과 성령』 (서울: SFC, 2019), 83.

8) 위의 책, 104-105.

9) Richard J. Mouw, *Abraham Kuyper*, 45.

10) Richard J. Mouw, "In the meantime," *Christian Century*, August (2011), 25.

손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심지어 동료 칼뱅주의자들과 대화할 때도 각 교리의 세밀한 쟁점들에 대해 토론하면서 무례하고 교만한 모습을 자주 내비친다고 호소했다. 세속의 죄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속된 영역으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애로움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마우는 어떻게 21세기에 칼뱅주의자들이 존재해야 하며, 불신자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¹¹⁾

아브라함 카이퍼를 비롯하여, 네덜란드의 신칼뱅주의자들, 헤르만 바빙크, 베르카위어(G. C. Berkouwer), 스테판 그라빌(Stephen Grabill)은 하나님에 관한 일반 은총을 통하여 모든 영역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 사역을 발견하고자 했다. 종교 개혁 전통의 자연 법 사상을 따르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을 성취하려는 급진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칼뱅의 전적인 타락 교리에도 불구하고 타락 이전과 이후에는 일반 은총의 개념에서 둘 사이의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여겼다.¹²⁾ 특히 카이퍼는 반정립(antithesis), 즉 다른 두 실체의 극단적인 반목이라는 용어를 가져다가 자신의 주요 방법론으로 삼았다. 타락한 인류의 삶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공동체의 삶을 대립시키면서 세속적인 실천과 거룩한 삶의 실천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인간의 긍정적인 기여를 고려하는 신학적 개념, 즉 일반 은총(common grace)의 긴장을 눈여겨 살펴보았다.¹³⁾ 죄의 전적인 타락에도

11) Richard J. Mouw, *Calvinism in the Las Vegas Airport*, 김동규 역,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항을 가다』 (서울: SFC, 2008), 19.

12) Richard J. Mouw, *Adventures in Evangelical Civility*, 100-103. 물론 마우는 카이퍼의 제자인 헤르만 바빙크를 통해서 신칼뱅주의의 사상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을 받았으며, 21세기에 기독교 공동체의 삶과 선교를 고민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Richard J. Mouw, "Neo-Calvinism," 9.

13) Richard J. Mouw, *Abraham Kuyper*, 94-97. 마우는 헨리 스톱과 도에베르트가 지적했듯이 영적인 반정립적 대결이 인류 전체를 분리시킨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호의적인 태도인 일반 은총을 염두한 것이다. 이러한 반정립과 일반 은총 사이에는 여전히 상충되는 지점이 있지만, 리처드 마우는 카이퍼의 논의를 이어받아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기독교의 승리주의적 태도를 경계하면서도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분리되지 않은 타협의 지점을 찾아내려고 했다. 교회 안과 밖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도 둘 사이의 접점을 발견하고 복음주의 관점에서 다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대안들을 제시해 온 것이다.

2. 복음주의 전통

리처드 마우는 넓은 의미에서 복음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다. 복음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좋은 소식(evangel), 곧 복음(gospel)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주의(evangelism)라는 꼬리표는 기독교의 특정 하위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¹⁴⁾ 리처드 마우의 초기 사상에서는 신칼뱅주의 영향으로 복음주의 관점에서도 문화 변혁론의 입장을 띠었다. 그는 복음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개인의 영혼 구원을 강조하지만, 사회복음(social gospel)의 흐름을 따라 사회 변혁론도 지지했다. 복음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면서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른 중요한 공적인 사역을 포괄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실 뿐 아니라, 예수는 그의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로 구성된 다민족적인 공동체를 사신 분이다. 예수는 죄의 저주로 영향을 받은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제도화된 악의 구조를 뒤흔들었다.¹⁵⁾ 복음의 개인적 차원과 공적인 차원

14) Richard J. Mouw, *Smell of sawdust: what evangelicals can learn from their fundamentalist heritage*, 김동규·김행민 역, 『툭밥 향기』 (서울: SFC, 2016), 29.

15) 리처드 마우, 한화룡 역, 『미래의 천국과 현재의 문화』 (서울: 두란노, 1986), 91.

모두를 강조하면서도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 것이 마우의 신학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마우의 복음주의는 개인의 영역과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갇혀 있지 않다. 마우는 복음주의가 상당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와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왔다고 비판한다. 그러한 이유는 전통적인 경건주의 흐름의 영향인데,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있는 작은 양무리로 이해하면서, 세상과는 분리시켜 두 진영이 문화 전쟁(culture wars)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⁶⁾ 복음은 둘이 아니다. 마치 개인의 영혼을 위한 복음이 있고, 세계 전반을 위한 복음이 있어서 서로 갈라선 것이 아니다.¹⁷⁾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원리를 제공한다. 그는 복음 전도가 지나치게 강조될 때 발생하는 역설적인 특징을 비판한다. 전도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신앙의 실천인 것은 맞지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복음주의가 일으키는 한계들을 다섯 가지로 지적했다.

첫째는 영혼 구원과 같은 회심(conversion)에 집중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개인의 변화와 회개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을 둘러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다. 회심을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자와 아닌 자를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전개하기에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둘째는 반지성주의이다. 반지성주의는 근본주의(fundamentalism)적인 특성으로 복음의 인식론을 제한시킬 수 있다.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려는 태도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마치 반지성적인 삶인 것처럼 오해

16) Richard J. Mouw, *He Shines in All That's Fair: Culture and Common Grace*, 권혁민 역, 『문화와 일반 은총』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18.

17) Richard J. Mouw, *Praying at Burger King*, 강봉재 역, 『버거킹에서 기도하기』 (서울: IVP, 2009), 127.

할 수도 있기에 경계해야 한다. 셋째는 개인주의이다. 개인을 강조하는 근대적 특징처럼 공동체와 분리된 현대인을 최고의 존재로 생각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복음은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공동체를 통하여 전달되었으며 누군가와 함께하는 관계적 특징이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탈정치적인 특징이다. 마우는 1973년에 출간된 *Political Evangelism*에서부터 개인의 변화는 반드시 사회와 정치적 구조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복음의 영역을 한쪽 시각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은 문화적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의 역설이다.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와 개종을 목표로 접근했던 서구 기독교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식민지를 제국주의의 방식으로 침략했다.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개방적이면서도 대화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¹⁸⁾

종종 복음주의자들은 마치 인간이 공적인 삶에서 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오직 두 가지 방식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공적인 삶과 관련된 모든 관계로부터 동떨어져서 스스로 문화의 주변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독교 군대를 통해 공적인 삶을 장악하여 기독교의 법칙과 실천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¹⁹⁾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우는 지금의 현실을 ‘탈-기독교 세계’(post-Christendom), 또는 ‘탈-콘스탄틴주의’(post-Constantinian)로 규정했다. 그는 하나의 제국과 권력으로서 기독교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변방의 나그네로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두터운(thick)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얇게(thin) 사회 참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²⁰⁾ 이러한 마우의 입장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진영이

18) Richard J. Mouw, "Evangelism: The Very Idea!," *Pro Ecclesia*, 7-2(1998), 175-182.

19) Richard J. Mouw, *Abraham Kuyper*, 184-185.

20) Richard J. Mouw, *Adventures in Evangelical Civility: A Lifelong Quest for Common*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복음 이해를 개인과 공공으로 확장시키고 세속 사회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갖추는 것은 공공신학자로서 마우의 행보를 크게 넓힐 뿐 아니라 기독교 진영의 공적 책임과 응답의 토대를 놓은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III. 리처드 마우의 공공신학

1. 거룩한 세계(성)(holiness)

리처드 마우는 근본주의자들이 취하는 내세 지향성(otherworldliness)과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를 경계한다. 그들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물질적 현실 세계를 영적인 세계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면서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세계는 더욱 최악이 가득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흐름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세속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반지성주의를 따르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을 설교했다.²¹⁾ 비록 세속이 최악으로 오염되어 심판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타락한 상태에서도 마우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져 있다.

마우가 추구한 ‘거룩한 세계(성)’는 세상의 올바른 존재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세계가 자체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신 분과 그의 목적에 따라 세계의 거룩함이 존재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뜻한다.

Ground,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6), 71-80. 물론 포스트-크리스텐덤이나 포스트-콘스탄티누스주의는 재세례파 계열의 신학자와 공동체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존 하워드 요더나 그의 영향을 받은 스텔리 하우어워스는 탈기독교 세계에서 교회의 역할은 세속에서 분리된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충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21) Richard J. Mouw, *Distorted Truth*, 오수미 역, 『왜곡된 진리』 (서울: CUP, 1999), 30-32.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 안으로 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속 사회를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세속의 영역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성찰한 바를 정치적으로 행동하며 헌신해왔다.²²⁾ 리처드 마우는 비신자들이 죄로 인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문화 영역 안에서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하다고 여겼다.²³⁾ 칼뱅은 모든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종교의 씨앗’(seed of religion) 또는 ‘신성한 감각’(sense of divinity)이 자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종교 개혁자들 이후에 자연법 사상과 자연 신학, 일반 계시, 일반 은총, 하나님의 형상 등으로 확장되어 나간다. 마우는 칼뱅의 주장을 기초로 타락한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간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동력이 될 수 있음도 강조한다.²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짜투리를 인정하면서 은혜 안에서 왜곡된 현실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카이퍼는 일반 은총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했다. 일반 은총의 ‘내적인 작용’과 ‘외적인 작용’이다. 일반 은총의 외적 작용은 과학 지식의 진보와 예술의 번영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말한다. 반면 내적 적용은 사회적 미덕, 내면의 양심, 자연스러운 사랑, 인간성의 실현, 공공 의식의 성장, 신실함, 사람들 간의 신뢰, 경건한 삶을 위한 열망 등 인간의 내면적 삶을 지칭한다.²⁵⁾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총 안에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모두 적용된다. 그렇기에 믿지 않은 이들도 선한 동기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신자들의 삶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22) Richard J. Mouw, “Baptismal Politics,” *Reformed Journal* 28(1978), 2-3.

23) Richard J. Mouw, “Calvin’s Legacy for Public Theology,” *Political Theology*, 3(2009), 441.

24) Richard J. Mouw, *Adventures in Evangelical Civility*, 12-13.

25) Richard J. Mouw, *He Shines in All That’s Fair*, 71.

성령님을 통해 거룩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창조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며 이를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한다.

마우는 1983년에 쓴 *When the Kings Come Marching In*에서 이사야 60장을 통해 문화 변혁의 관점에서 새롭게 도래할 예루살렘을 계시록 21~22장에서 언급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종말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했다. 세속의 타락한 정치권력과 국가는 변혁된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 교정될 것이며, 부정과 불의를 자행한 제국주의적인 우상숭배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변혁된 도성을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가 도래할 것을 주장한다.²⁶⁾ 세상은 스스로 구원하거나 거룩해질 수 없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로 인하여 세상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마우가 생각하는 ‘거룩한 세계’, ‘세상의 기독교’는 교회와 세상을 혼합한 이상한 괴물이 아니다. 거룩한 세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공간에서 주님을 섬기려는 세계이다. 이것은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²⁷⁾ 이러한 일반 은총의 접근 방식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연결점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속의 은혜가 죄악된 세상에서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 타락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거룩하게 해나가는 것임을 잘 드러낸다.

26) Richard J. Mouw, *When the kings come marching in*, 한화룡 역, 『미래의 천국과 현재의 문화』 (서울: 두란노서원, 1986), 50-61.

27) Richard J. Mouw, *Calvinism in the Las Vegas Airport*, 김동규 역, 『칼빈주의, 라스베이거스 공항을 가다』 (서울: SFC, 2008), 129-130.

2. 다양성과 공통성(commonness)

풀러 신학교에서 20년간 총장 활동을 마친 그에게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 “풀러 신학교와 같이 다양한 신앙의 배경(메노나이트,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 등)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마우는 친구의 질문에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공통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²⁸⁾

마우의 응답처럼 다원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시대에, 인간의 공통성에 대한 작업은 타자를 향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이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과정이며, 마우는 기독교 전통의 자연법(natural laws)에서 그 답을 찾았다.²⁹⁾ 사람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 것은 지적인 탁월함을 지닌 몇몇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마우는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주장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연대(bonding)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 차원을 주목한다. 일반적인 자아들을 묶어주면서 공유된 시민성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마을에서 벌어지는 축제(festival)가 비슷한 해답을 던져준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공동체의 축제는 광장의 수많은 꽃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새로움을 향한 비전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서로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며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³⁰⁾ 각자의 차이를 남겨두되, 그것으로 대립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분모를 토대로 서로 연대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칼뱅주의자들은 일반 은총을 논의할 때, 반정립(antithesis)의 개념을 끌어들인다. 반정립은 헨리 스톱이 그의 논문에서 “anti”(반대하여)와

28) Richard J. Mouw, “What’s Theological About Theological Education?,” *Theological Education*, 49(2014), 1.

29) Richard J. Mouw, *He Shines in All That’s Fair*, 23.

30) Richard J. Mouw, *Adventures in Evangelical Civility*, 89.

“tithemi”(놓다)의 합성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두 개의 개체, 시간, 원리가 대립하여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 19세기 네덜란드 신칼빈주의자들은 이를 신학으로 적용하면서 극단의 대립상태로 설명했다. 하나님과 사탄,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교회와 쟁과 같은 대립된 개념들이다.³¹⁾ 물론 스톱은 반정립을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인간의 계층간 관계로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와 은혜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다.³²⁾

하지만 마우는 창조의 다수성(many-ness)을 긍정하면서 “온 세계가 하나의 작은 공간(one square inch) 안에” 갇힐 필요는 없다는 카이퍼의 말을 인용한다.³³⁾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이미 세상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이셨다. 핵심은 세속의 다양성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할까에 있다. 카이퍼는 공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중요시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라틴어 금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면전에 선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는 코람데오(coram deo)였다. 카이퍼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깊은 사역적 경험을 높이 평가하면서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⁴⁾ 카이퍼는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역은 세상을 죄악된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긍정할 수 있는 세상을 뜻한다. 다양성 이슈에서 필요

31) Henry Stob, “Observation on the Concept of the Antithesis,” in Peter De Klerk and Richard R. De Ridder, eds., *Perspectives o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Studies in Its History, Theology and Ecumenicit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p 252-53. Richard J. Mouw, *He Shines in All That's Fair*, 34에서 재인용.

32) Richard J. Mouw, *He Shines in All That's Fair*, 47.

33) Richard J. Mouw, “Neo-Calvinism,” *CTJ*, 51(2016), 8.

34) Richard J. Mouw, *Calvinism in the Las Vegas Airport*, 123.

한 것은 하나님 닮음(divine likeness)의 다른 차원을 인정하는 관대함이 기도 하다.

3. 정치적인 교회와 복음의 실천

1973년 리처드 마우는 *Political Evangelism*에서 복음 전도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제안한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인된 개인을 구원하고 복음의 교회를 형성하지만, 더 나아가 정치적 현실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마우에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곧 정치적 구원(political redemption)을 위한 것이었다.³⁵⁾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세속의 정치처럼 공권력을 가지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안에서 새로운 정치적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정치는 세속의 정치와는 결이 다른 또 다른 현실, 아니 더 근원적인 현실이다.

복음주의 진영은 그리스도의 사건과 가르침을 개인의 영역, 또는 사적인 믿음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건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현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최악으로 왜곡된 사회 구조와 정치적 현실의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마우에게 교회는 양면적인 의미를 띠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구속받은 인간의 공동체인 동시에 정치적인 공동체이다.³⁶⁾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제도적이거나 비제도적인 모든 관계와 구조들을 다룰 책임이 있다. 세속의 정치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35) Richard J. Mouw, *Political Evangelism*, (Grand Rapids: Eerdmans Pub, 1973), 23-24.

36) 위의 책, 40-41.

가지는 근본적인 속성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진다. 교회는 양쪽 진영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적절히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보다 큰 인류 공동체의 정치 영역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복음 전도는 교회 안과 교회 밖 모두를 포함한 선포이며 증언이다.³⁷⁾ 마우가 생각하는 공적 선포로서 복음 전파는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는 카이퍼가 긍정했던 민주주의 정치체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공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하나님의 구속은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는 전체 피조 세계를 위한 회복이기 때문에 개인과 교회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복음 전도는 개인의 실천적 행위와 공동체적 존재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³⁸⁾

더 나아가 마우는 교회를 거룩한 국가(holy nation)로 이해했다. 그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국가로서 교회의 이미지를 여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거룩한 국가로서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언약 공동체를 잇는 연속성을 갖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공동체로 묶으셨기에 그리스도인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신약성경을 왜곡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거룩한 국가로서 교회는 반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도의 변혁을 위해 존재한다. 셋째, 교회는 세속 정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재형성할 책임이 있다. 넷째,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삶의 형식으로 세속 정치를 도와야 한다. 다섯째, 그리스도 몸으로서 교회는 세속과는 구별된 국가적 이해를 가질 뿐 아니라 세속 정부하에서 우리의 책무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마지막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공동체로써 특정한 정치적 힘을 가질 것을 제안한

37) 위의 책, 47.

38) 위의 책, 90-91.

다.³⁹⁾

교회의 정치적 증인은 개인적인 복음의 경험에 기초한다. 그것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요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소속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 동시에 개인의 복음 선포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해방시키는 십자가의 권능을 선포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권능이 전쟁의 종결과 국가들의 불의함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 사역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과 영역으로 나아가야 할 뿐 아니라, 복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IV. 공적인 삶의 실천

1. 신념 있는 시민 교양(convicted civility)

리처드 마우는 『무례한 기독교』에서 공적인 삶의 태도로서 ‘시민 교양’을 제안한다. 시민 교양은 시민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태도이다. 그것은 공적인 예의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해심을 품고, 기지, 중용, 고상한 태도, 예절을 베푸는 것이다. 물론 외적인 공손함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교양 있는 태도에는 내적인 측면이 함께 자리한다. 예의 바른 태도는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사회 전체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자세로서 마음으로부터 동료 시민들을 존중해야 가능한 것이다.⁴⁰⁾ 그리스도인들이 교양에 대해 논의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기본 원리를 설정해야 한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일반 사회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성화된 삶은 결국 사회 속에서 구

39) 위의 책, 47-49.

40) Richard J. Mouw, *Uncommon Decency*, 20-21.

체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나타나야 한다.⁴¹⁾ 즉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마우가 제안하는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은 마틴 마티(Martin Marty)의 주장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그는 마티의 *Politics, Religion, and the Common Good*을 비평하면서 신념이 있는 시민 교양에 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⁴²⁾ 다원화된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신앙과 신념은 점점 약화되어갔고 시민들의 공론장에서 개별적인 주장들이 충돌하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시민 교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티는 1981년에 출간된 *By Way of Response*에서 세상은 신념 있는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앙이 있다고 다 좋은 시민은 아니며, 반대로 시민이라고 다 건강한 신념을 가진 것은 아니다.⁴³⁾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과 신념은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되어가는 현대사회를 묶어 낼 수 있는 덕목이자 종교적 신념이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공적 참여라 할 수 있다.

시민 사회의 연대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서 정치적 이익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영적인 차원이 가미된다. 마우는 일반적인 축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연대를 소개한다. 지역 안에서 진행되는 축제에서 공유된 시민의식이 발생하고 함께 모여 서로를 바라보면서 타자들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은 연대를 이뤄간다고 말한다.⁴⁴⁾ 시민 교양의 영성은 반드시 자기비판의 요소를 갖춰야 한다. 정직한 눈으로

41) Richard J. Mouw, *He Shines in All That's Fair*, 117.

42) Richard J. Mouw, "Public religion through thick and thin," *Christian Century*, June 7-14(2000), 648.

43) Martin E. Marty, *By Way of Response*, (Nashville: Abingdon, 1981), 81.

44) Richard J. Mouw, *Adventures in Evangelical Civility*, 83.

우리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⁴⁵⁾

마우는 “A Spirituality for Public Life”에서 기독교의 공적 참여에서 영적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독교 시민’(christian citizenship)의 핵심 요소인 영성은 모든 인간 존재들과 평화를 추구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로널드 티먼(Ronald Thiemann)이 주장하듯 ‘덕의 훈련소’(schools of public virtue)로서 교회가 시민적 덕목을 양육하는 요소이기도 하다.⁴⁶⁾ 로널드 티먼은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에서 덕의 훈련소로서 교회의 기능을 세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교회는 예배와 교육, 예전과 교리 교육(catechesis) 사이에 필수적인 연결을 재발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과 삶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성경, 예전 행위, 성스러운 이미지와 상징 등을 통해 신앙의 가르침을 얻어야 한다. 둘째, 교회는 다양성의 한복판에서 일치를 향한 공동체적 공적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인종적, 문화적, 정치적 다원화된 현실 사회에서 교회는 기독교 전통의 연합과 일치를 통한 하나 됨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한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지니는 희망은 하나의 덕목으로서 교회 밖으로 확장되어 사회적 약자와 불의한 상황에서 ‘십자가의 희망’(cruciform hope)을 보여야 한다.⁴⁷⁾

물론 교양있는 태도와 대화를 통해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공동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것이 자신들만의 종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안의

45) Richard J. Mouw, *Uncommon Decency*, 98.

46) Richard J. Mouw, “A Spirituality for Public Life,” *Theology Today* 61(2005), 473-481.

47) Ronald F. Thiemann,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121-124.

모든 이들의 생명을 돌보고 책임적인 태도로 함께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카이퍼의 일반 은총 교리를 수용한 것도 기독교 공동체가 더 광범위한 문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초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반 은총의 내적인 작용과 외적인 작용을 구분하면서 양쪽 모두가 시민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겼다. 외적인 작용은 과학 지식의 진보, 예술의 번영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뜻하고, 내적인 작용은 사회적 미덕, 내면의 양심, 인간성과 공공의식 증대, 신뢰와 경건한 삶을 지칭한다.⁴⁸⁾

2. 거룩한 시민

리처드 마우는 *Called to Holy Worldliness*에서 ‘세속의 신자’(worldly laity)를 제안한다.⁴⁹⁾ 세속의 신자는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신자를 뜻한다. 더 나아가 세속을 거룩한 영역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책임을 가진 이들이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실천하기 위하여 신자들은 공적인 이슈에 대하여 신학적 성찰과 비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신학자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전유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마우는 신자(laity)들을 위한 신학은 그들 스스로가 담당해야 하기에, 평신도의 신학(theology of the laity), 평신도를 위한 신학(theology for the laity), 평신도에 의한 신학(theology by the laity)을 제안한다.⁵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을 가진다. 그리스도인은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

48) Richard J. Mouw, *He Shines in All That's Fair*, 70.

49) Richard J. Mouw, *Called to Holy Worldlines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25.

50) 위의 책, 20.

는데, 구약의 예언자와 제사장 모델이 대표적이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제사장은 백성들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공공의 영역에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현실에서 세워나간다.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진심으로 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열린 자세를 취하며 살아간다. 마우는 그리스도인이 공적 영역에서 수행하는 제사장 직분이 세속에서 모두를 향한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⁵¹⁾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거스틴이 주장하듯 하나님의 도시와 사람의 도시, 양쪽에 속해 있으며 국가에 속한 것처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충성하는 범국가적-다인종적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⁵²⁾ 하늘의 시민이자 땅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인은 애국의 기도(patriotic praying)를 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마우는 기도가 갖는 정치성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우리보다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로마서는 기록한다. 애국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정부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며, 이 사랑의 행위 중의 하나가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⁵³⁾ 물론 마우가 국가주의처럼 정부와 나라를 하나의 이상화된 종교 체제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마우는 일상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지기적 삶에 관심을 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 세계에 지배권을 행사하라고 명령하신다(창 1:28). 그렇다고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51) Richard J. Mouw, *Uncommon Decency*, 153-55.

52) 위의 책, 51.

53) Richard J. Mouw, *How to be a Patriotic Christian*, (Downers Grove: IVP, 2022), 78-79.

아니다. 지배권(dominion)은 지배력(domination)과는 다르다. 지배권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 지음 받았음을 가리킨다.⁵⁴⁾ 하나님은 공적인 의(義)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의로운 사회는 인격의 발달을 도모하고 평화와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의 대리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표준을 공적인 삶에 적용하고자 애써야 한다.⁵⁵⁾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만의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토대로 세속에서 각자의 소명의 삶, 공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3. 다수성의 인정과 대화의 실천

마우는 세속주의, 절대주의, 주술주의, 허무주의, 상대주의와 같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다양한 흐름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이 모두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지 질문한다. 어떤 하나의 정답으로 모두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온전함을 위해서 신학의 총체성(wholeness)을 제안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통합된 삶을 제안한다.⁵⁶⁾ 이를 위해 그가 제안했던 방법론은 바로 대화(dialogue)이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대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속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화를 통해 함께 행동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적 대화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뿐 아니라 다양한 공적 이슈에서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을 제공한다.⁵⁷⁾ 대화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타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54) Richard J. Mouw, *Praying at Burger King*, 64.

55) Richard J. Mouw, *Uncommon Decency*, 43-45.

56) Richard J. Mouw, *Distorted Truth*, 박일귀 역, 『왜곡된 진리』(서울: 도서출판CUP, 2021), 219.

경청하여 응답하기 위한 교양 있는 태도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이자 공존과 공생을 위한 최선의 응답이기도 하다. 9.11 테러의 결과로 생긴 최근의 현상은 폭력과 사랑, 평화와 종교 간의 이슈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종류의 종교간 대화였다. 그는 풀러 신학교에 있을 때 무슬림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2006년 10월 13일에 무슬림 지도자들이 ‘우리과 당신들 간의 공동의 세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성명서에는 무슬림과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을 담았고, 양자 간의 대화를 지속하도록 기여했다.⁵⁸⁾

물론 교회 밖의 세속 영역에 대한 경계심과 복음의 실천을 향한 분투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리주의적인 태도로 세속을 죄악시하는 것을 그는 경계한다. ‘세속적’(secular)이란 표현은 근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또는 ‘거룩하지 못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본래 세속적이란 단어의 라틴어 *saeculum*은 시대나 어떤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temporal) 것을 의미한다. 세속주의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는 신성함을 상실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비진리를 특징으로 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세속’과 전투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마우는 진리를 수호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승리보다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라 주장한다.⁵⁹⁾

마우는 로버트 벨라의 『마음의 습관』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공적 광장에서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가 공적인 삶의 토대였던 오랜 종교적, 시민적 인생관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공통의 기억과 토대의 상실은 시민들을 묶어줄 수 있는 정서적, 문화적 장의 상실이기도 하다.⁶⁰⁾ 그리스도인은 다원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장 간단하면

57) Richard J. Mouw, *Political Evangelism*, 86.

58) Richard J. Mouw, *Uncommon Decency*, 143.

59) Richard J. Mouw, *Distorted Truth*, 78-88.

서도 현실적인 방법은 공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대화적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 세계를 특징짓는 다원성을 기뻐해야 하며, 인간 사이에도 존재하는 다원성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에 의해 결합된 삼위(three Persons)의 공동체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바로 그 핵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즉 다른 인격과의 영원한 사랑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⁶¹⁾

특히 마우는 바빙크(Herman Bavinck)가 문화적 다양성과 창세기의 하나님 형상을 연결하는 방식을 유용하게 생각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이 소수의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시공간적으로 더 넓게 퍼져나가면서 풍성한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마우는 일반은총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목적에는 다수성 혹은 다수성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⁶²⁾ 다원화된 사회에서 복음 전도는 다른 종교의 정복이나 공격적 행위가 아니라 평화로운 공존의 바탕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최근의 종교 간의 대립과 전쟁을 고려할 때 근본주의적인 확신이나 태도를 내려놓고 공존과 대화를 위한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⁶³⁾

마우는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인간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영성을 주목했다면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의 경험을 설명한다. 공통의 경험과 자발적인 관계성 형성이 필요하기에 축제와 같은 지역 행사는 건강한 시민 사회 형성을 위한 촉매제가 된다.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은 기독교 시민의식의 형성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며

60) Richard J. Mouw, *Uncommon Decency*, 88.

61) Richard J. Mouw, *Distorted Truth*, 121-123.

62) 이창호, “문화사역의 신학적 토대에 대한 성찰-몰트만과 마우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6(2020), 229-231.

63) 한국일, “복음전도와 교회의 공적 책임,” 『장신논단』 35(2009), 163-164.

다원화된 사회 안에서 타자를 향한 신뢰와 연민을 훈육할 수 있는 실천이다.⁶⁴⁾ 또한 그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을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dining)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위기를 감안할 때 함께하는 식사는 시민의 우정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행위일 수 있다.⁶⁵⁾

과거나 오늘날이나 성경의 계시에 비추어 문화적 차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는 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문화적 다양성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⁶⁶⁾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다. 그리고 윤리적 문제들에 있어서도, 칼뱅주의자들은 이 덕목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겸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겸손은 세상의 모든 잘못된 영혼들을 향한 관용의 태도를 만들어 낼 뿐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그룹들로부터 진정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결합된 신학적 겸손함이 필요하다.⁶⁷⁾

V. 나가는 말

리처드 마우의 공공신학은 한국교회와 신학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를 잘 보여준다. 복음의 정통주의를 지지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열려 있는 태도를 취하는 신학적 개방성은 공적 현실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좋은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64) Richard J. Mouw, "A Spirituality for Public Life," *Theology Today*, 61 (2005), 472-473.

65) Richard J. Mouw, *How to be a Patriotic Christian*, 41-42.

66) Richard J. Mouw, *Uncommon Decency*, 109.

67) Richard J. Mouw, *Calvinism in the Las Vegas Airport*, 『칼빈주의, 라스베이거스 공항을 가다』, 183.

진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우월한 자세와 태도를 내려놓고 겸손과 예의 있는 태도로 동료 시민들과 연대하며 창조 세계(공적 현실)를 돌볼 책임이 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했던 이원론적 사고와 승리주의적 태도는 오히려 복음을 변형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리처드 마우의 공공신학이 갖는 장점은 그동안 공공신학이 비판받아 온 성서적인 특징이 약하다는 것과 교회 공동체와 전통에서 벗어난 사회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존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한다. 마우의 공공신학은 교회성을 강조하면서도 세속 영역에서의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칼뱅의 사상을 잇는 개혁교회 전통을 고수하면서 좌우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유지한다. 한국교회의 상황을 염두하자면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진영의 날카로운 대립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동시에 공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비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진보 신학을 지향하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우가 제안하는 ‘거룩한 세계’와 ‘거룩한 시민’의 입장은 날카로운 이분법을 극복하고 공적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여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 반대로 진보 기독교계에서는 보수 기독교계를 반이성적,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양성과 공통성’의 관점에서 서로의 교차점을 찾으려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가 취하는 신학적 모호함으로 인해 양쪽 진영에서 외면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혁 전통의 신학 노선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다양성의 인정과 대화적 태도를 취하는 부분에서 학계간 연구를 통한 다양한 종교와 교파 간의 대화를 지향하기도 한다. 어쩌면 마우가 처한 미국 기독교 상황에서 전통과 신학적 입장에 따라 갈라선 교계의 대화와

공존을 모색한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마우의 접근은 다원화된 시대에 더욱 진귀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진영의 만남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책임과 삶의 태도를 요청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앙적이고 실천적이라 할 수 있다. 마우가 제안하는 다양한 공공신학의 특징들이 한국교회의 실낱같은 빛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Richard J. Mouw, *He Shines in All That's Fair*. 권혁민 역. 『문화와 일반은총』.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 _____. *Uncommon Decency*. 홍병률 역. 『무례한 기독교』. 서울: IVP, 2014.
- _____. *When the kings come marching in*. 한화룡 역. 『미래의 천국과 현재의 문화』. 서울: 두란노서원, 1986.
- _____. *Praying at Burger King*. 강봉재 역. 『버거킹에서 기도하기』. 서울: IVP, 2009.
- _____. *Abraham Kuyper: A Short and Personal Introduction*. 강성호 역. 『아브라함 카이퍼』. 서울: SFC, 2015.
- _____. *Distorted Truth*. 오수미 역. 『왜곡된 진리』. 서울: CUP, 1999.
- _____. *Abraham Kuyper: A Short and Personal Introduction*. 김동규 역. 『칼빈주의, 라스베이거스 공항을 가다』. 서울: SFC, 2008.
- _____. *Smell of sawdust: what evangelicals can learn from their fundamentalist heritage*. 김동규, 김행민 역. 『툽밥 향기』. 서울: SFC, 2016.
- _____. *Adventures in Evangelical Civility: A Lifelong Quest for Common Ground*.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6.
- _____. "A Spirituality for Public Life." *Theology Today* 61(2005), 471-484.
- _____. "Calvin's Legacy for Public Theology." *Political Theology*. 3 (2009), 1712-1778.
- _____. *Called to Holy Worldlines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 _____. "Evangelism: The Very Idea!." *Pro Ecclesia*, 7.2 (1998), 172-185.
- _____. *How to be a Patriotic Christian*, Downers Grove: IVP, 2022.
- _____. "In the meantime." *Christian Century*. August (2011), 24-29.
- _____. "Neo-Calvinism: A Theology for the Global Church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lvin Theological Journal*. 51 (2016), 7-19.
- _____. *Political Evangelism*. Grand Rapids: Eerdmans Pub, 1973.
- _____. "Public religion through thick and thin." *Christian Century*, June 7-14 (2000), 648-651.

_____. “What’s Theological About Theological Education?.” *Theological Education*, 49 (2014), 235-242.

Ronald F. Thiemann,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Martin E. Marty. *By Way of Response*. Nashville: Abingdon, 1981.

Vincent E. Bacote, *The Spirit in Public Theology: Appropriating the Legacy of Abraham Kuyper*. 이의현 역. 『아브라함 카이퍼의 공공신학과 성령』. 서울: SFC, 2019.

이창호. “문화사역의 신학적 토대에 대한 성찰-몰트만과 마우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6(2020), 209-246.

Matthew Kaemingk eds., *Reformed Public Theology: A Global Vision for Life in the Worl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1.

한국일. “복음 전도와 교회의 공적 책임.” 『장신논단』. 35(2009), 140-178.

논문투고일: 2024년 02월 07일

심사개시일: 2024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04월 15일

• 국 문 초 록 •

리처드 마우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철학, 윤리 그리고 공공의 다양한 이슈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기독교 사상가이다. 20여 권의 책과 수백 개의 아티클을 통해 정치, 경제, 인종, 세계화, 종교 간 대화, 교육 등의 공적 이슈를 신학적으로 다뤘을 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다. 리처드 마우의 신학은 개혁주의 전통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 모두를 아우르는 폭넓은 대화적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마우는 신학과 공적 삶(public life) 사이의 연결성을 고민하면서 신학의 토대 위에서 세속 사회를 이해하고 응답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리처드 마우의 공공신학을 제안하면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진영으로 양분된 한국교회의 접점을 찾는 동시에, 공적 현실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참여를 제안한다. 교회의 전통과 복음의 진리를 유지하면서도 다원화된 상황에서 예의 있는 태도와 변혁적 실천의 가능성을 제안하려 한다.

주제어: 리처드 마우, 공공 신학, 공적 신앙, 신칼뱅주의, 신념 있는 시민교양, 거룩한 세계
